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인도 시장 공략 나섰다

현지 방문 중장기 성장 전략 점검...직원들과 타운홀미팅 고객지향 철학·전동화 전략·미래 방향성 등 주제로 소통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인도를 방문, 현지의 미래 성장전략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직접 소통했다.

정의선 회장이 지난해 8월에 이어 인도를 다시 방문한 것은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인구를 보유한 인도는 지난해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다. 내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4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인도는 독립 100주년인 2047년까지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국가 비전 'Viksit Bharat (발전된 인도)@2047'을 추진하고 있다. 이 비전은 지속 가능성, 경제적 번영, 기술 및 혁신, 현대적 인프라, 포용적 사회 등을 포괄하고 있다.

모빌리티 주요 거점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인도 자동차시장 규모는 500만대로 중국, 미국에 이어 견고한 3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종 승용차 (Passenger Car) 시장은 410만대 규모로, 오는 2

030년에는 5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강력한 전동화 정책도 펼치고 있다. 올해부터는 '최소 5억달러를 인도에 투자하고 3년 안에 전기를 생산하는 업체에게 최대 100%인 수입 전기차 관세를 15%로 대폭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정의선 회장의 인도 방문은 이 같은 인도의 급속한 변화 발전 과정 속에서 현대차그룹이 인도 사회의 중추적 모빌리티 기업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다양한 사업적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차원이다. 동시에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과 ESG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도 고객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

2026년 인도 진출 30주년을 맞는 현대차는 '모빌리티 혁신기업, 그리고 그 너머 (Innovator in Mobility and Beyond)'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인도를 방문, 현지의 미래 성장전략을 점검하고 타운홀미팅을 통해 현지 직원들과 직접 소통했다. 사진은 정의선 회장과 경영진들이 현대차 인도권역본부 타운홀미팅을 마친 후 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현대차그룹 제공>

를 목표로 2030년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기아 150만대 생산 체제 구축, 전기차 라인업 확대 및 전동화 생태계 조성, SUV 리더십 강화, 인도 문화와 고려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 23일 (현지시간)

인도哈里아나(Haryana)주 구르가온(Gurgaon)시에 위치한 인도권역본부 델리 신사옥에서 현대차·기아의 업무 보고를 받고 양사 인도권역 임직원들과 중장기 전략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이어 정의선 회장은 중장기 전략의 실행 주체인 인도 현지 직원들과 타운홀미팅을 갖고, 직접 소통했다.

현대차 인도 100만대 양산체제 구축,

전동화 본격 추진 등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현대차 현지 직원들과 수평적이고 열린 소통을 통해 비전을 공유하고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정의선 회장이 제안한 타운홀미팅은 현대차 이재훈 사장, 인도아중동대권역 김인수 부사장 등 경영진들과 400여명의 현대차 인도권역본부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권역본부 델리 신사옥

에서 개최됐다. 타운홀미팅은 인도 전 지역 직원들로부터 취합한 질문과 현장 즉석 질문들로 진행됐다. 인도에 대한 비전, 현대차 성장 요인, 인도 전기차 사업 계획 등 사업 현안에 대한 질의부터, 정의선 회장의 일상 관련 내용까지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1시간으로 예정됐던 시간이 30분 이상 연장됐다.

정의선 회장은 서두에서 지문인 '고객지향 철학'을 강조하며 "우리가 말하는 이유는 바로 고객이며,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그룹에서 인도 권역이 갖는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도 밝혔다.

정의선 회장은 "인도권역은 현대차그룹의 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권역 중 하나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세계 경제 침체와 공급망 대란 등 수많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꾸준히 좋은 성과를 창출했다"며 "경제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인도에서 지속적으로 시장점유율 2위를 달성하고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하며 브랜드 파워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임재만 기자



광주신세계, ESG 실천으로 환경보호 '앞장'

일회용품·잔반 줄이기 캠페인 등

지난해 한국 ESG기준원의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주)광주신세계가 ESG 활동에 대한 임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먼저 지난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해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본관 지하 2층 사내 카페에서 텀블러를 가져오면 아메리카노 한잔을

무료로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지난 17일 본관 지하 2층 직원 식당에서는 잔반줄이기 캠페인(사진)을 진행해 버려지는 음식물을 평소보다 약 20% 줄였다.

지난해 11월 열었던 잔반줄이기 캠페인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대폭 줄이고 ESG 활동에 간편하게 동참할 수 있었다는 직원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면서 올해도 캠페인을 마련하게 됐다. /정은수 기자

보해양조, 광주FC 홈구장서 '택시운전사X앞새주' 행사

내일 실물 택시 활용한 포토존 운영... '5월 중 기아 홈구장서 이벤트'

보해양조가 오는 27일 광주FC 홈구장에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택시운전사X앞새주 특별판'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다.

27일 보해양조에 따르면 광주축구전용구장 GATE2에 마련된 이벤트 부스에서 택시운전사에 등장하는 '브리사' 택시의 실제 모델로 꾸며진 포토존을 운영한다.

포토존에서 영화 속 인물의 모습을 재연하며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용기'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스 입장 시 진행되는 포춘퀴즈 추첨 또는 하프타임 이벤트에 당첨된 관객에게는 '브리사' 피규어 굿즈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 중 하프타임 이벤트에서

는 선수 사인이 담긴 브리사 굿즈를 증정한다. 영화의 택시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번 굿즈는 택시운전사X앞새주 한정판 모델이다. 프라모델 제작 업체 '아카데미과학'의 문방구 시리즈 중 기존 붉은색 브리사 피규어의 인기에 힘입어, 영화 속 택시 버전으로 특별 제작됐다.

임지선 보해양조 대표는 "5월 중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도 택시운전사X앞새주 특별판 관련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보해양조는 여러 제품과 행사를 통해 광주 전남 지역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보해양조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의 이야기를 지역민들과 함께 기억하고자 영화 '택시운전사' 이미지를 라벨에 적용한 택시운전사X앞새주 특별판을 4·5월 간 광주·전남 지역에서 판매한다. /박은성 기자

롯데백화점 광주점 "가정의 달 건강을 선물하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27일 "지하1층 정관장 매장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7일부터 5월17일까지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 소중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념일들이 많은 5월을 앞두고 해당 매장에서는 인기 상품인 흡삼성 에브리타임 리미

티드, 천녹정을 포함해 품목별 5-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정관장 멤버스 회원 대상으로 40만원 이상 구매 시 2만포인트 적립 및 감사품을 증정하고 27일부터 5월7일까지는 구매 금액대별로 5% 상당의 롯데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정은수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상무지국 453-2554	· 유동지국 222-8171	· 오치지국 261-9461
	· 산수지국 224-4188	· 광천지국 374-2120	· 운암지국 529-3548	· 문흥지국 261-9462
	· 학운지국 673-6836	· 진월지국 676-2726	· 용봉지국 261-1503	· 일곡지국 573-3200
	· 화정지국 372-9140	· 봉선지국 673-6836	· 신가지국 954-1420	· 첨단지국 971-7374
	· 금호지국 376-7153	· 백운지국 673-0123	· 양산지국 574-3745	· 치평지국 371-9584
· 풍암지국 603-0311	· 두암지국 266-1920	· 하남지국 951-9954	· 수완지국 955-0451	
· 노대지국 674-3581	· 농성지국 362-4102	· 운남지국 952-1687	· 광신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나주시사 061)335-0005	· 보성지사 061)852-6644	· 무안지사 061)453-3645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광양지사 061)793-6800	· 화순지사 061)373-7795	· 함평지사 061)322-0882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구례지사 061)782-4696	· 장흥지사 061)863-6800	· 영광지사 061)353-5133
	· 신안지사 061)980-8300	· 담양지사 061)383-5566	· 강진지사 061)432-8899	· 장성지사 061)394-3636
	· 순천지사 061)746-1600	· 곡성지사 061)362-5746	· 해남지사 061)535-5849	· 완도지사 061)555-0134
· 여수지사 061)851-6433	· 고흥지사 061)832-6290	· 영암지사 061)473-7151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